

哲學 意義와 範圍 (三)

韓稚振

그러나 哲學과 哲人이란 말은 主前 王[三]世紀末부터 使用하게 되었다. 當時의 歷史家 『헤로도투스』와 『류시디스』가 哲學이란 말을 처음 썼으나, 學術上으로 使用하기는 아마 『소크라테스』인 듯하다. 그새 『소피스트』(智者 或은 敎師)라는 學者들이 出現하여 希臘 青年에게 宇宙와 人生에 關하여 여러 가지 智識을 가라쳐 주고 生計의 資料를 어땀다. 이들은 獨斷的으로 屢屢 詭辯을 吐한 까닭에 『소피스트』 智者라고 하는 것보다 『詭辯者』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소피스트』의 一人이였다. 그러나 그는 生活의 資料를 맞지안코 哲學을 가라쳤다. 이럼으로 哲學이란 것은 生計의 資料를 不□하고 宇宙와 人生에 對하여 알고저 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哲學 『필노소피』의 語義로 말하면 『智慧의 愛好』이니 이는 思想史가 證明하는 定義이다. 個人의 眞正 알고저 하는 智慾이 哲學作用을 하게 된 것이다. 哲學의 最貴한 事實은 그 結果보다 그 哲學作用이다.

宇宙의 根本的 原理에 對하여 理論을 세우는 中에 哲學은 傳統的 宗教의 思想과 相衝하게 되었다.

그러나 實相 哲學은 宗教에서 發達되어 나아온 것이다. 哲學과 宗教와의 關係를 다음에 論示하겠다.

四. 哲學과 宗教

哲學과 宗教는 여러 方面에 잇서서 密接히 關係되었다. 둘이 다 經驗에 依하여 完全한 世界觀을 作成하려한다. 特히 그 始作에 잇서서 哲學과 宗教는 사람의 想像力과 理智的 創作力을 信任하였다. 哲人 『플레토[플라톤]』는 宗教家가 死後의 永生을 밋드시 觀念의 實在와 能力을 밋었다. 原始時代에 잇서서는 宗教와 哲學이 分化되지 못하였다. 原始人은 自然環境의 森羅萬象을 說明하되 自己들이 所有한 心靈과 가튼 活物이 萬象內에 潛伏하여 그 一切

의 靜動을 原因한다 하였다. 一月星辰, 草木念靈, 其他 不可思議한 自然現象의 變異는 다 그 背後에 있는 神奇요 精靈의 所作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神話는 原始人の 宗教와 哲學이오 科學이었다.

以上과 反對로 哲學과 宗教는 그 歷史的 發達의 初期에서부터 互相 相反目하여온 것은 事實이다. 첫째 哲學과 宗教間의 反對되는 點을 말한다 하면 宗教는 以上 보이지 않는 靈의 活力을 믿으며 個人에게 與하지 안코, 漸次로 一個 家庭 혹은 部落이 共通的으로 믿는 것이 되어 社會的 中心權威가 된다. 이와 가튼 社會的 權威가 있는 宗教的 信念은 後代에 傳하여 다시 公認을 얻게 된다. 이리하여 宗教는 그 起源에 있어서 社會的이오 權威的이다. 그러나 哲學은 個人의 獨立한 理智作用의 產物이다. 哲學家는 孤立的 思考者이다. 그는 自己의 思考力과 研究力으로써 傳統的 世界觀을 批判하며 自己의 獨特한 人生觀을 作成한다. 이러케 하는 中에 過去의 思想 뿐이 아니다. 現在의 思想까지도 是非하여 他人의 非難 甚하면 刑罰까지 맞게 되는 것이다. 宗教는 社會的이오 權威的인 反對로 哲學은 個人的이오 批判的이다. 例하면 猶太教는 猶太民族의 產物이오 印度教는 印度民族의 產物이다. 그러나 哲學은 『칸트』의 哲學과 『플라톤』의 哲學이 잇스[슴]니다. 個人的 努力의 結果이다.

以上과 가튼 哲學과 宗教는 서로 反對되는 故로 哲學이 始作할 때부터 宗教의 傳說과 反對되는 事實이 만혔다. 이 哲學과 宗教와 反目は 希臘哲學史에 있어서 種種 尤甚하였다. 『제나테니스』는 『흘머』의 擬人的 神觀을 打□하여 神도 사람의 不完全성과 其他 短點을 가졌다는 것은 妄說이라 하였다. 『푸로타고라스』는 神의 存在를 疑心하였고, 『에피큐러스[에피쿠로스]』는 神의 理想的 存在만을 認定하고 神이 世上事를 干涉한다는 思想은 否認하였다.